

서구, 광주 최초 실감형 체험관 '서빛마루 실감서재' 운영

실감형 콘텐츠 통한 미래형 도서관 체험 공간
검색의 미래·디지털북·인터랙티브 지도 구성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서빛마루 도서관이 광주 최초로 실감형 체험관 '서빛마루 실감서재'를 운영한다.

서빛마루 실감서재는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새

로운 미래형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으로 조성했다.

해당 공간은 ▲미디어월과 멀티 터치 테이블의 연동으로 새로운 검색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검색의 미래' ▲동의보감·무예도보통지 등 의 고서를 디지털로 생동감 있게 재현한 '디지털북' ▲수선전도·목장지

도 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지도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인터넷 랙터브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실감서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둘째·넷째 주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서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콘텐츠를 활용함과 동시에 향후 자체개발 콘텐츠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빛마루 실감서재를 통해 이용자들이 미래의 독서환경을 체험하고 새로운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빛마루도서관은 지난해 7 월 개관·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인형극·퓨전국악·밴드공연 등 다양한 청사를 건립,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기영 기자

남구, 장애 아동 대상
'학업·건강관리' 지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 세대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저소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 및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해 내년에 구비 1 천 945만원을 투입해 매월 학습지와 건강음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 아동 학습지 및 건강 음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가정 자녀의 교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돋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와 차상위 계층, 사례관리를 받는 취약계층 가정의 장애 아동으로, 미취학 아동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습지와 건강음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장애 아동 57명에게 매주 4차례씩 건강음료를 지원하며, 25명에게는 학습 능력 향상 및 학습 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주 1차례씩 학습지를 제공한다.

종류는 국어, 영어, 수학, 독서, 과학, 외국어, 한자까지 7개 과목이며, 이중 본인이 희망하는 1개 과목을 1 년간 지원한다.

/정희태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육군 제31보병사단 6753부대 2대대와 함께 예비군 임무 수행 능력과 통합방위 태세 향상을 위한 '동구 예비군지역대' 창설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시교육청 청사 이전 추진 환영

교육환경개선, 민·관협의체 등 교육혁신 박차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신창동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 단(옛 학교시설지원단)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최초로 미래교육지구, 교육국 제화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광산구는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광산교육협력센터를 출범시켰고, 광산구 교육환경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 혁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며 "시교육청 이전 추진으로 광산구는 명실상부 광주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됐다"고 기대했다.

특히, "2000년 이후 광산구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 및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걸맞은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시교육청 청사 이전 추진될 수 있도록 광산구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아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역 크를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영구임대단지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특화 돌봄모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등으로 확보한 국비·지방비 총 33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주민 5만 3천여 명을 발굴▲언제나 건강한 의료돌봄 ▲누구나 행복한 일상돌봄▲고독사 없는 안전돌봄▲주거기반 공동체돌봄 등 4개 분야 통합돌봄서비스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동구 예비군지역대 창설...지역안보 강화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육군 제31보병사단 6753부대 2대대와 함께 예비군 임무 수행 능력과 통합방위 태세 향상을 위한 '동구 예비군지역대' 창설식을 진행했다.

동구 예비군지역대는 변화된 국내·외 안보 상황과 작전환경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예비전력 관리와 부대편성으로 지역안보 태세를 강화하고자 창설됐다.

동구는 예비군지역대 창설을 계기로 동·서구대대와 동구 예비군

동대의 중간 지휘 체계가 생기게 돼 6천여 명의 예비전력에 대한 지역 예비군 동대 지휘통제, 교육훈련과 지역 방위작전 수행 등 임무 수행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 지역대 소속 동대는 산수1 동대, 산수2동대, 계림1·충장동대, 계림2동대, 지산동대, 동명·서남동대, 지원동대, 학운·학동대이다.

/이유빈 기자

공정과 상식